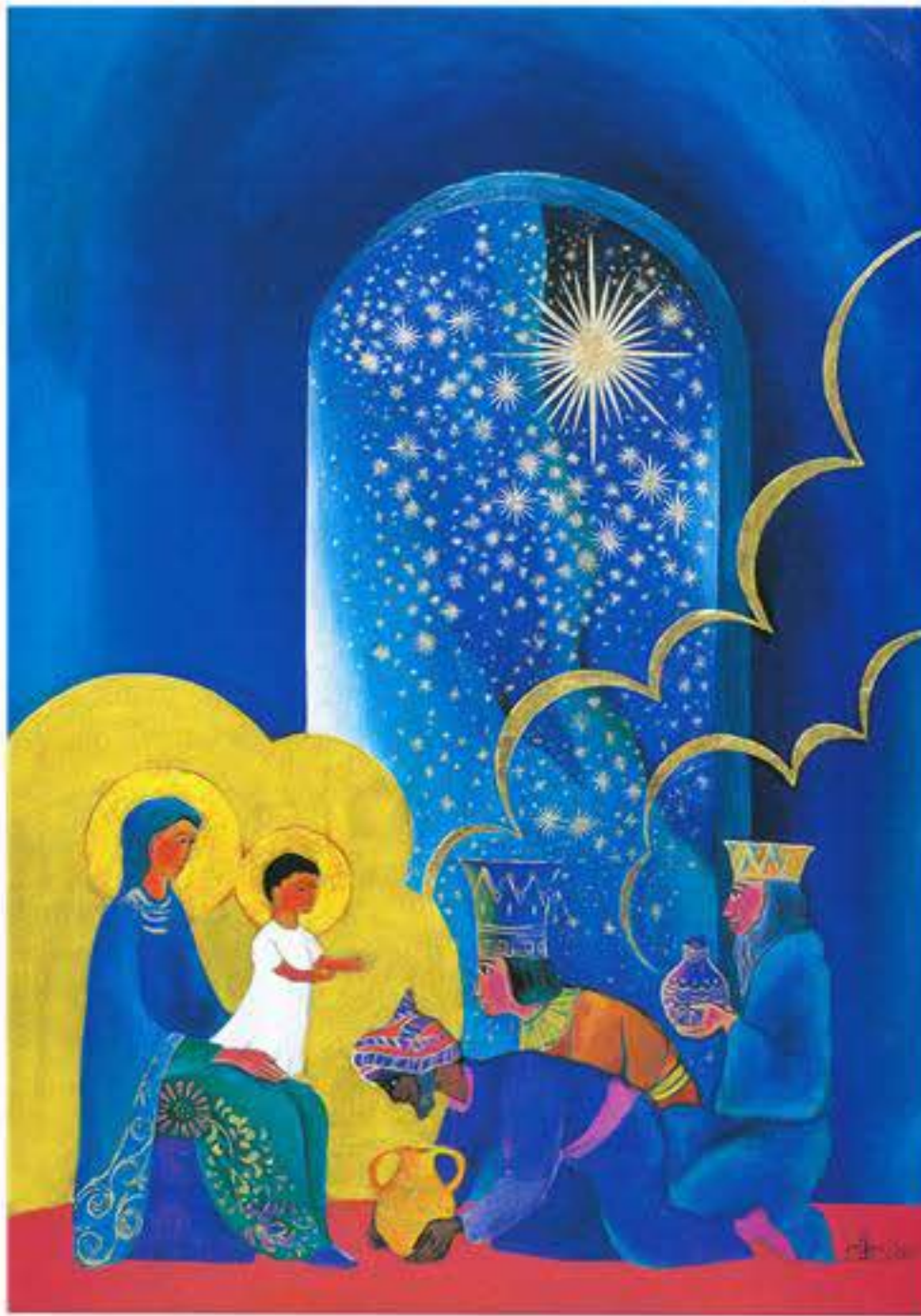


2017년 1월 8일

주님 공현 대축일 (가)

제1917호



동방박사의 경배, 황한재, 캔버스-유채, 50cm x 80cm, 2005, 조영호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 미사 전례

- 제1독서 : 이사 60,1-6
- 화답 송: (악보 참조)
- 제2독서 : 에페 3,2.3-5-6
- 복음환호송: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복음 : 마태 2,1-12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낮 반 - 주일 오전 9:00
저녁 반 - 목요일 밤 8:00



성경의 인물 27 동족 3천명을 살해한 모세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광야였다.

어느날 야훼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모세야, 시나이 산으로 올라오너라.”

“왜요?” “내가 나의 백성을 가르치려고 훈계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하느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두 개를 주셨다. 그런데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슬렁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물려가 간청했다.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가 없어서 아론은 조금 망설였지만 백성들이 여간 보채지 않아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면, 너희 아내나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마.”

드디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뛰어 놀았다.

그러자 야훼 하느님은 화가 나서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모세야! 저 꼴을 보라. 너의 백성이 꼴값을 떨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고 숭배하고 있으니,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아니, 하느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화를 풀어주십시오. 그 옛날 우리 선조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약 것들... 쫓쫓...” 모세는 간신히 하느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돌판 두 개를 들고 하산했다. 그 돌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다가가니, 온 백성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난장판이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모세는 갑자기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하느님께서 주신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끌어다 불에 태워 재를 뿜아서 가루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마셔! 이놈들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도 지을 수 없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모세는 레위 후손들을 모아 백성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했다. 진지는 순식간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나뒹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렇게 죽은 이가 약 3000명 가량 되었다. 우리는 화가 나서 하느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리고 동족 3000명을 살상한 모세를 성서에 나오는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믿음이 좋은 성서의 의인 중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도 많다. 하느님에게 있어 의인의 기준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의인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세상의 눈으로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손길을 믿고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참 의인이다.

현실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인 것이다. 사실 모든 이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다. (평화신문 1999년 12월 5일 허영엽 신부, ‘성서의 인물’)

주임신부님 이동

- 이임 : 제9대 송재훈(라파엘)신부님
- 가시는 곳 : 마산교구 거제 고현성당
- 부임 : 제10대 양태현(그레고리오)신부님
- 계시던 곳 : 마산교구 마산 월영성당
- ※ 가시는 신부님과 오시는 신부님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유예물 봉헌

- 구유 앞에 예물 봉헌함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함께 기뻐하며, 불우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자선의 덕을 베푸시어 기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 * 구유예물 봉투는 성당입구에 있습니다.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년도이월	\$14.39	누계	\$191.84
1월 1일	\$177.45		

동전 모으기 2016년 결산

수입	전년도 이월	\$0.00
	2016년 1월1일 - 12월31일	\$974.39
지출내역	주일학교교사 식사비	250.00
	주일학교 성탄선물	350.00
	주일학교 복사단 피정비	360.00
잔 액		\$14.39

타본당 · 단체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2017.1.18.(수)-1.22(일)(4박5일)
- 지도: 이재욱 예수회 신부님.
- 장소: Price of Peace Abbey(Oceanside, CA)
- 문의: 하 세실리아 ☎ 323-578-2230

송봉모(토마스 모어)신부님 성경학교

- 일시: 2017.1.20.(금),21(토)저녁미사 후, 22(일)2:00pm
- 장소: 한국순교자천주교회
- 문의: ☎ 714-897-6510

전례봉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일	일시		해설	독서
	금주	07:00	장 요한	3구역	6구역		수	07:00	박 로사	자비의 모후 Pr
		11:00	고 세실리아	1,2반	4반		목	07:00	박 안토니아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김 데레사	3구역	1구역		금	07:00	강 올리아나	금요 성경반
		11:00	박 로사	3반	1반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성경봉사자	08:30	201호		대건회	12:00	502호
	반장회의	12:00	성당		요셉회	12:00	501호
	안나회	12:00	유아실		하상회	12:00	101호
	ME	12:00	별관	다음주	성모회	12:00	602호
					꾸리아	12:00	성당

우리들의 정성 (2017. 1. 1 현재)

교 무 금	8,090.00	교무금 / 건축헌금 봉헌(26명)	
주일 헌금	2,835.00	김귀종,김성택,김순도,김진홍,김천희,김 호,류대선,박경조,박 관,안진환,오원종,유병욱,유복선,윤해진,이강선,이기주,이민선,이윤석,이진석,이현우,임상도,전영숙,전승재,최재각,한상윤,이제임스.	
성탄구유예물	550.00		
건축헌금	80.00		
광고비	1,500.00		



2017 정유년(丁酉年) 새해 아침
Griffith Park 정상